

서귀포 인구정체 속 20만명 시대 멀어지나

10월 인구 18만1649명으로 두 달 연속 감소세 기록 출생아 줄며 인구 자연감소도 한몫... 원도심 인구 ↓

서귀포시 지역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속에 1년 여 전쯤부터 인구정체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제주 순유입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던 2015년부터 3년동안은 연간 6000명 이상 인구가 늘었고, 혁신도시 이전기관 입주 완료로 '20만명 시대'에 대한 기대감도 나왔지만 최근의 유입인구 둔화세에 출산율 하락과 맞물리며 쉽지 않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1일 서귀포시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서귀포시 주민등록인구는 18만1649명으로

9월(18만1787명)에 견줘 138명 감소했다. 9월에 전달(18만1889명)보다 102명 줄어든 데 이는 두 달 연속 감소세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달 대비 석달 연속 감소했고, 올 들어서도 증가세가 주춤거리며 2018년 5월 사상 처음으로 18만명을 넘어섰고 8월 18만1000명대에 진입 후에는 정체 상태다.

반면 제주도 인구는 10월 기준 48만9089명으로 전달보다 266명 증가했고, 제주에 인구가 순유입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월별 인구가 전달

보다 감소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서귀포시의 인구 정체는 순유입인구 감소와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데 따른 인구의 자연감소도 한몫 하고 있다. 올들어 제주로 순유입된 인구가 2773명으로, 작년 동기(8110명) 대비 65.8% 감소했고, 고령인구 증가로 사망자는 증가하는 반면 출생아 수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서귀포시의 작년 출생아 수는 1036명, 사망자 수는 1258명이었다.

전반적인 서귀포 인구 정체 속 원도심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반면 혁신도시와 신규 택지개발지구로 인구가 불리는 현상도 심화돼 원도심 공동화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 순유입인구가 늘어나기 시작

한 2011년과 올해 10월 기준 인구변화를 보면 원도심인 송산동(4979→4269명), 정방동(2910→2294명), 중앙동(4478→3747명), 천지동(3864→3559명)은 인구가 감소했다. 반면 혁신도시 조성과 강정택지개발지구 조성 등으로 대륜동(9246→1만4374명), 대천동(6920→1만3804명) 인구는 눈에 띄게 증가했다. 중문동(8899→1만1233명)과 동흥동(2만1042→2만3061명), 서흥동(8499→1만421명) 인구는 늘었다. 이 기간 서귀포시 5개 읍면은 모두 인구가 늘었는데, 영어교육도시가 들어선 대정읍 인구가 1만6552명에서 2만1348명으로 증가폭이 가장 컸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태풍때마다 유실 위미항 방파제 공사 완료

4년간 271억 투입 시설 보수

태풍 때마다 유실이 반복됐던 '위미항 방파제' 공사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방파제 시설물의 피해예방과 어선 안전정박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한 위미항 방파제 보수·보강공사가 완공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4년간 국비 271억원이 투입, 위미항의 동방파제를 신규로 150m 연장하는 것으로, 기존 855m에 이르는 동·서방파제에 대해서는 상치콘크리트 등을 보수·보강했다.

앞서 해당 공사는 해마다 태풍 내습으로 방파제 블록 및 사석이 유실되는 것을 반복했고, 이로 인해 공사도 10개월이 연장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보수·보강



위미항 방파제. 사진-제주도 제공

으로 인해 위미항 내 정온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상악화 상황에도 어선들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은범기자

방과 후 돌봄시설 신청 '정부24'서 한번에 가능

내년 하반기부터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는 방과 후 돌봄을 위해 관련 시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대표포털 '정부24'를 통해 돌봄 시설 검색과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제공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는 4가지로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학교 내 돌봄인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지역 기반 돌봄인 '다함께돌봄'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활동지원을 위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다.

항만운송사업 업무 전반 제주도가 맡는다

도, 이달중 조례 공포·시행

항만운송사업 전반에 대한 권한이 제주도로 넘어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11일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고, 이달 중 공포 절차를 진행해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관련 조례가 제정된 뒤 지난달 31일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으면서 이뤄진

것이다.

이번 조례에는 11개 조문이 담겨 있는데, 주요내용은 ▷항만하역사업·항만운역업 등 항만운송 관련 사업 등록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 등이 담겨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항만운송관련 사업 민원처리 기간이 6일에서 5일로 단축되는 행정규제 완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항만 제주도는 지난 7월 제주항과 서귀포항, 전국 무역항에 등록된 89곳 항만운송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년 동안 사업을 하지 않은 업체가 전체 53%에 달하는 47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이 1년 이상 없는 항만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간의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진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제주시 '연말 복지사각지대 해소 총력'

저소득 취약계층 집중 발굴

제주시는 이달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저소득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하고 발굴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원 뿐만아니라 민간자원을 동원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우선 홀로사는 노인가구의 편안한 겨울나기를 위해 홀로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를 통해 주 1회 직접 방문, 주2회 안부전화 실시로 안전확인 체계를 구축하고, 홀로사는 노인 난방비를 1인당 8만5000원 이내로 지원하며, 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를 사랑 잇기 사업을 통해 김장김치 2942가구, 전기요 230가구, 겨울이불(460가구) 등을 지원한다.

중년층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서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협력을 통해 고위험

가구를 수시 발굴하고 질병, 은둔, 생활고 등으로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는 긴급지원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이 이달 주거취약계층 전수조사를 실시해 1가구당 3명의 인적안전망인 SOS긴급지원단을 연계하고, 12월중 소방서와 합동으로 안전점검 실시, 겨울철 난방용품 지원한다.

겨울철에 취약한 노숙인의 안전을 위해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노숙인(우려자) 밀집지역의 현장 활동을 강화한다.

겨울방학 중 결식 우려아동에 대해 부식 전달을 통한 중식지원, 가정위탁아동 세대당 150만원의 월동대책비 지원, 취약계층 아동의 방과후 돌봄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40개소에 1개소당 냉난방비 120만원이 지원된다.

고대리기자 bigroad@ihalla.com

"착한자전거로 나눔 확산" 재사용나눔가게 문 열어

제주수눔음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 자활사업단인 '재사용나눔가게'를 11일 개소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 사업은 제주시에서 자활사업 운영비 5900만원을 지원하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3000만원을 후원받아 운영되고 저소득층 중 일할 능력이 있는 대상자 5명이 참여해 '재사용나눔가게'라는 사업단을 꾸렸다.

이 사업단은 일정기간 운영 후 자활기업 창업을 통해 일반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시장진입형'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및 자립



11일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활사업단인 '재사용나눔가게'가 개소했다. 사진-제주시 제공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재사용나눔가게는 착한자전거라는 별도 공간을 마련해 버려지는 자전거를 수거해 리폼과 수리를 거쳐 렌탈 및 판매사업을 한다. 또한 주민들

로부터 기증받은 의류, 생활용품 등도 수선과 리폼한 후 판매함으로써 수익창출과 재활용 나눔 문화 확산과 자원순환사업에도 앞장서게 될 것이라고 센터는 전했다.

고대리기자

육아공감 콘서트 '투맘쇼' 개그우먼 김미려 등 출연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오는 15일(오전 10시)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당일 선착순으로 부모 400명을 대상으로 육아 공감 힐링 콘서트 '투맘쇼'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투맘쇼는 육아에 지친 부모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함께 감동과 재미를 선사하기 위해 개그우먼 김미려, 김경아, 조승희가 출연해 실제 육아경험을 바탕으로 '관객과 함께 하는 토크쇼', '폭풍 공감 퐁트' 등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희망자는 행사 당일 오전 10시까지 예술의전당 대극장을 찾으면 된다.

문미숙기자

www.토종흑염소목장.com / www.blackgoat.1939.co.kr

흑염소 체험농장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흑염소 체험농장과 힐링이 있는 곳!

제주 편백 숲

최대 편백숲

토종 흑염소 요리 전문점

흑염소 마루



▲ 흑염소 먹이들이 (시간마다 진행)



▲ 흑염소 놀이터 (흑염소는 본능적으로 높은 곳을 올라가는 것을 좋아함)
현재 3000두 이상 사육

피톤치드(자연항균물질)가 뿜어져 나오는 편백숲에서 산책하시면서 힐링과 건강도 챙기세요



▲ 편백숲길
오픈기념으로 편백수를 드립니다

가마솥에서 진하게 우려낸 흑염소 진국을 드시고 온 가족이 면역력도 함께 키워보세요

메뉴

흑염소탕 / 전골

수육 / 육회

숯불구이 / 떡갈비

노린내 나지 않는 염소고기 식당 납품 가능

흑염소 마루 / 예약문의

흑염소 진액 주문받습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 14번지

T. 064.805.5099

서귀포시 남원읍 태화로 663번길 1-1

T. 064.764.6678